

제 63 강

그리스도의 재림

■ 성경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1-5:28, 데살로니가후서 1:1-3:18 ■

프렐류드(Prelude)



데살로니가

오늘 우리는 바울의 처녀작으로 알려진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본문으로 합니다. 짧고 단순하면서도 초대 교회의 모습과 바울의 신앙적 열정을 담은 소중한 서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디모데의

보고는 바울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초신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범적인 신앙에 대하여 놀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린 교회에 닥칠 어려운 문제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교훈해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1장) 사랑의 수고(2장) 환난을 참는 소망과 인내(3장)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4장) 그리고 빛 가운데서 사는 모범적인 신앙을 증언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박해와 환란 중에서도 인내하고 있는 교인들을 위로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 가르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I. 주요 내용

1.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모범(데살로니가전서 1:2-2:16)
2. 다시 오실 주님 예수(데살로니가전서 4:13-5:11)
3. 재림에 관한 교훈(데살로니가후서 2:1-17)

II. 시대적 배경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 2 차 전도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때 설립되었습니다(살전 1:1, 2:1-2, 3:1-2; 행 17:1-10). 이때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바울은 규례를 따라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가르치며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거 하였습니다. 이때 놀랍게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드리고 예수께로 회심하였습니다.

처음 신자가 된 야손의 집에서 유숙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행 17:5). 데살로니가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다음으로 유럽에 세워진 두 번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 위에 선 교회였으며, 다른 교회에 모범을 보여주었으며(살전 1:67), 바울에게 한없는 기쁨을 준 교회였습니다(살전 3:9).

그러나 유대인들의 방해로 바울의 일행은 베뢰아로 피해갔으나(행 17:10-12), 거기까지 쫓아와 난동을 벌리는 유대인들 휘방으로 실라와 디모데는 남겨 두고 바울은 홀로 아테네로 갔습니다(행 17:13-15). 아테네에 있는 동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습니다(살전 3:2). 그리고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했습니다(행 18:5).

이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전히 바울을 사모하고 있으며(살전 3:6),

그가 전한 말씀을 잘 준행하며(살전 2:13),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있음을 보고했습니다(살전 1:2-10). 이 보고는 바울을 한없이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를 듣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것으로 단정하고 그때부터 일은 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자가 생기고(살전 4:11-12; 살후 3:8) 어떤 자들은 과거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여 부도덕한 생활에 빠져 있었으며(살전 4:1-6) 특히 죽은 가족들의 부활 문제로 심한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살전 4:13-18) 이 보고를 접한 바울은 먼저 감사와 기쁨을 전하고 몇 가지를 교훈하기 위해 데살로니가전서를 썼습니다. 이는 바울의 최초의 편지였으며, 주후 52년경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문제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주님 재림과 그리스도인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추가해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역시 고린도에서 썼으며, 때는 1년 뒤 주후 53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대표〉



III. 말씀과 해석

1.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모범(데살로니가전서 1:2-2:16)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1) 첫째는 믿음의 역사(役事)였습니다(살전 1:3). 믿음의 역사는 옥토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 둘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살전 1:3). 잘 자란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했습니다.

(3) 셋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입니다(살전 1:3).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대망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은 바울 신앙의 대강령(교전 13장)이었기에 더욱 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4) 넷째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는 기쁨과 말씀”으로 바울과 주님의 본을 보여 주었습니다(살전 1:6).

(5) 다섯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살전 1:9-10).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삶이었습니다. 이처럼 받은 말씀을 온전한 믿음과 삶으로 구현한 초심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각처에 아름다운 본을 보여주고 있었으며, 이 소식은 바울을 기쁘게 하였습니다(살전 1:6-10).

2. 다시 오실 주님 예수(데살로니가전서 4:13-5:11)

그러나 데살로니가 신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주의 재림문제였습니다. 특히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이 재림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와 주께서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라는 시기 문제였습니다. 먼저 죽은 자의 부활 문제에 대하여 바울은 죽은 자도 주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와 함께 부활하여 구름에 쌓여 올라가 주를 만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살전 4:14-17).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살전 4:14-17)

이 바울의 고백은 죽은 자의 부활 문제로 고민하고 슬퍼하는 신자들을 크게 위로하였습니다. 이어 바울은 주님 재림의 때를 놓고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주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돌연히 임할 것이지만(살전 5:1),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살전 5:4-5).

그러므로 “빛의 아들이요 닛의 아들들”인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살전 5:6-8)고 권고하였습니다.

3. 재림에 관한 교훈(데살로니가후서 2:1-17)

데살로니가후서는 재림에 대한 바울의 경고와 권고를 이어갑니다.

(1) 재림의 날에 나타날 징조(살후 1:1-12)

- 1)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출현(살후 1:8).
- 2)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살후 1:8).
- 3) 미혹하는 자(살후 2:4)
- 4)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이는 자(살후 2:4)
- 5) 불법한 자(살후 2:8)들의 출현입니다

(2) 심판의 날(살후 2:8-12)

- 1) 바로 이때 “예수께서 그의 입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강림하심(살후 2:8)
- 2) 심판하심(살후 2:9-12)

그리고 바울은 권고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복음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켜야 한다는 권고(살후 2:13-15)와 평강의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끝을 맺습니다(살후 3:16).

IV. 성찰과 나눔

1. 그리스도교 신앙에는 항상 양면이 존재합니다. 오늘의 기쁨과 내일에 대한 불안, 신앙과 의심, 구원의 감격과 사후에 대한 불확실성이 늘 공존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문제를 솔직히 드러낸 한 ‘전형’(典型)이었습니다. 뜨거운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한편 주님 재림에 대한 소망보다는 죽은 자의 부활 문제가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주님 재림에 대한 관심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후 그의 신앙여정의 중심주제가 되었습니다.

2.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주님 재림문제는 ‘종말론’(終末論)이라는 주제로 늘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종말론에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 (1)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다’는 과거형
- (2)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니다’라는 미래형
- (3) 이미 도래했으나 완성은 미래에 있다는 ‘이미와 아직은 아닌’이라는 구속사형으로 분류되어 오면서 지금도 토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바울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도둑 같이 임하실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제 3의 유형, 구속사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러나 문제는 그 누구도 재림의 때를 아는 사람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죽음을 꺾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 하나입니다. 신학은 예수의 부활과 재림 사이를 ‘중간기’(中間期-between times)라 합니다.

5. 이 중간기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부활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부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미래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도둑 같이 임하는 주의 날”(살전 5:1)로 표현하였습니다.